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이춘아*(동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전담교수), 이 숙(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피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규명하고자 어머니의 양육행동(권위주의적 통제, 과잉보호, 애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을 선정하고 공격성 및 피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요인분석,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격성 구성요인은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 피공격성의 구성요인은 직접적 피공격성과 간접적 피공격성의 2요인으로 각각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성과 피공격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통제와 과잉보호를 높게 지각한 집단은 직접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 직접적 피공격성 점수가 높았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따라 직접적, 간접적 피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직접적, 간접적 피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이 높았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공격성과 피공격성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피공격성과 공격성의 하위요인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공격성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 직접적 공격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간접적 공격성은 남녀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피공격성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접적 피공격성과 간접적 피공격성이 높았다. 학업성적은 피공격성에서만 차이가 나타나서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은 직접적 피공격성과 간접적 피공격성이 높았다.

다섯째,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 공격성에는 청소년이 지각한 직접적 피공격성, 권위주의적 통제, 성별, 과잉보호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변인들이 직접적 공격성의 23%를 설명했다. 또한 간접적 공격성에는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 자아존중감, 직접적 피공격성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변인들이 간접적 공격성의 9%를 설명하였다.

또한 직접적 피공격성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직접적 공격성, 성, 자아존중감, 학업성적 순이었고 이 변인들은 피공격성의 27%를 설명하였고, 간접적 피공격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직접적 공격성, 성적, 성별 순으로 이 변인들은 간접적 피공격성의 21%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접적 피공격성이고, 간접적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권위주의적인 통제이며, 직접적 피공격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접적 공격성이고, 간접적 피공격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